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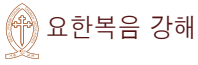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가나 혼인 잔치 II

(요 2:1-11)

이종윤 원로목사

4.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목적

(1) 자기 계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 2:11)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부합합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르가 살아나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2) 문제 해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또 다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은 이상하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풍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유대 풍습에 대한 기록에서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잔치에 기쁨을 제공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손님이 많이 왔든가 아니면 잔칫집 주인이 소홀하게 생각해서 준비를 잘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필경 마리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으로 잔칫집의 문제가 해결된 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신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4절).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인간이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9:26에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죽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이기에 아직 메시아 됨을 완전히 드러낼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귀한 신앙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귀한 믿음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요소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 같지만 하인들은 순종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되 풍족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라고 했으니 물이 열두세 통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게 구해서 탈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포도주는 제일 먼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10절). 종들은 음식이 된 지 어떤 것이 진짜 좋은 포도주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의 교리는 알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도주, 곧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유대 종교를 기독교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점점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은 불완전하나 둥근 해와 같이, 보름달과 같이 점점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 4:1)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18(월) - 11. 23(토) / 새벽 5:00 - 6:00

강사 : 박순오 목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도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11월 18일(월) - 23일(토) 새벽 5시에 있을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당회, 장기간 교회 불출석 교인들에 대한 2차 교적정리를 결의하다

당회는 지난 11월 6일(수)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교회를 떠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2차 교적정리를 결의하였다.

앞서 7월 정기당회에서 1차 교적정리를 한 이후 지난 3개월여 교구목사들을 통해 추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한 결과, 교회에 정식 제적요청의사를 표시한 강경미 등 562명에 대하여는 제적처분을 결의하고, 동시에 교회에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의무를 행

치 않고 있는 가효정 등 912명에 대하여는 헌법 제 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종교인처분을 결의한 후 그 대상자와 그 선포사실을 오늘 배부되는 후보 삼지로 넣어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 실종처분대상에 포함된 교인들은 이후 언제라도 돌아와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 제2편(정치) 제20조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시 교인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천수 문동진·김은정 고선옥 장창수·박해정
 송재현·선순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11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1월 10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11월 17일: 정철웅(일반외과)
- 11월 24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교회김장 일정

11월 25일(월) - 26일(화)
 베델하우스

- 25일: 새벽기도회 후 배추 절이기, 양념 준비
- 26일: 새벽기도회 후 배추 씻기, 양념 버무리기, 배춧속 넣기
 봉사는 25일 오전·오후, 26일 오전·오후 4개 조로 나눕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어느 조에서든 봉사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김장김치를 보관할 대형아이스박스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집에 아이스박스가 있으신 분은 이름을 표시하여 김장하는 날 베델하우스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벨단원 모집

2부 핸드벨과이어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일을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만 50세 이하 찬양을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성별 무관) - 문의 : 강지은 대원 010-3272-1420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고전 12:1).

'은사'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주어진다"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자연적인 재능들을 각각 제 나름대로 지니고 태어난다.

이러한 재능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 즉 신령한 것들로 주를 섬기게 하신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들 즉 거듭나기 전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들을 십자가를 통과케 하여 새롭게 하신 후 사용하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먼저 예수를 믿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은 그의 타고난 재능을 새롭게 하신다.

자신을 드러 주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있던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성령의 은사라고 부른다.

▶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다.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본분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로 주님의 몸 된 신 교회를 세워가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써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 성경통독: (전 성도 성경읽기표 기록)
- ▶ 주어진 "사명자대회 기도문"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초대



한상욱 집사 (고등부 부감)

지칠 줄 모르는 무더위를 견디며 시원한 가을이 속히 도래하기를 바라던 때가 불과 며칠 전인 듯싶더니 이제는 쌀쌀한 겨울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것은 올해의 수능시험일 것입니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극한의 긴장과 불안감을,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가 발표될 때에 혹자는 웃음과 안도의 한숨을,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과 후회의 한숨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지나고 나면 이것도 별거 아닌 그저 삶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

우리 아이의 미래와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은 이번 대학입학 수능시험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4일(목요일),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 지인을 두신 모든 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단 순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닌 “우리 아이의 미래와 인생의 향방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가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부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시다.

꼭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01호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시험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중에 용기와 평안을 얻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 101호

1.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2.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하옵소서
3.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6.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구별 연합모임을 마치면서



최원석 집사(13교구 부교구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험난했던 교회 위기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년도의 정상화된 서울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며 성도들간에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단합하는 마음을 갖고자 10월 초부터 교구위원회(오광환장로) 주관으로 교구별 친교연합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교구별로 지역적, 연령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경건회 후 간단한 운동경기, 산책과 둘레길 걷기 등 행사 후에 식사를 같이하며 성도들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속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모임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모이기에 힘쓰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성도간의 긴밀한 교제(Fellowship)를 여러 성경구절을 통해 강조하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요일 1:7),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롬 15:25),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 10:24)

교회가 혼란에 휩싸이면서 반대편에 서서 저희를 비난하고 소송을 걸며 교회혼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서울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서울교회는 재건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남아있는 성도들간에 화합과 결속이 필요합니다. 교회분쟁으로 교회 출석을 미루고 있거나 마음이 상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까지도 곧 회복될 서울교회로 인도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작은 성도교제의 단위인 다락방을 활성화하여 작은 모임을 자주 가지며 흠여졌던 성도들을 다시 성령으로 품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선교보고-인도네시아

음악이 선교의 도구로

인도네시아는 폭염 주의보가 내리면서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빛으로 온 나라가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 흠바람이 매일 날리고 있고 건조함으로 땅은 타들어 가고 있고 농부들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압디엘 교회 음악 대학원은 지난 7월에 문교부 정식 인가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주신 동역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모두 5명의 신입생 중에 3명(Septhian, Wisnu, Riko)은 대학원 과정에 2명(Febby, Irvan)은 1년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원 과정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교육부 인가 소식이 들리자 여기저기서 입학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학비 관계로 인해 입학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2.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어린이들은 이성일 선교사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피아노 교육은 복음 전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거의 부재이다 보니 피아노와 음악 이론 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아노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레슨비가 너무 비싸서 피아노 레슨을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성일 선교사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한 달 반을 사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간암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행복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생전 당신의 장례를 다 준비하셨고 화환과 부조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내빈없이 가족만으로 조촐히 장례를 치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단아하게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억으로 가족끼리 아픔을 나누며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1.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2. 압디엘 교회 음악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3.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새로운 장소를 위하여
4.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광중 이성일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에 충성과 복음이 있기를 위하여
5. 오마바빠 사회복지관을 통하여서 이슬람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6. 저희 가족의 영적인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하여, 특히 딸 파란하늘이를 위하여

서광중 · 이성일 선교사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1월11일	월	행 15-16		마 16-20	
11월12일	화	행 17-19		마 21-24	
11월13일	수	행 20:1-22:21		마 25-28	
11월14일	목	행 22:22-25:27		막 1-5	
11월15일	금	행 26-28		막 6-9	
11월16일	토	롬 1-2		막 10-13	
11월17일	주일	롬 3-5		막 14-16	

2019년도 연말 교회 일정

- 11월 24일(주) : 추수 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8주년 감사주일 감사 찬양예배 (가브리엘찬양대)
- 11월 29일(금) : 교역자·장로 목회정책협의회
- 12월 8일(주) : 2020년 직분자 임명과 교구총회
- 12월 15일(주) : 교사총회 성탄축하 찬양예배(할렐루아찬양대)
- 12월 22일(주) : 성탄축하 특별행사(교육부서)
- 12월 24일(화) : 오후 8시, 성탄전야예배
- 12월 25일(수) : 오전 5시 : 성탄절 새벽예배 (베들레헨찬양대) / 오전 11시 : 성탄절 축하예배 (할렐루아찬양대)
- 12월 29일(주) : 교회학교 졸업 - 찬양예배 시 : 향존직분자 은퇴 및 장로안식년, 전도시상, 장한어머니상(다자녀, 개근자녀)시상, 주간성경공부 시상 - 찬양예배 후 : 특별 제직회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승인의 건)

동 정

- 수상 : 8교구 유은경 집사 『2019신학협력캠프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대상 -교육부장관상
- 금주의 식사 : 한준희 집사 이근희 권사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비빔밥, 김치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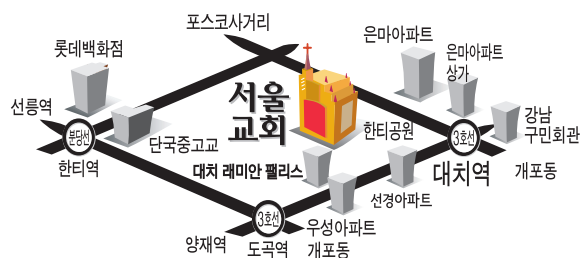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1월 14일(목)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2. 2019 사명자대회 자유키도에 힘써으로써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